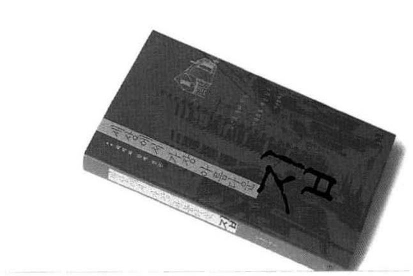
공학이 아닌 삶으로서의 집, 건축설계사가 풀어놓는 공간과의 정담기 情談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서윤영 지음 | 궁리 | 290쪽 | 값 12,000원

건축설계사(무영건축사사무소) 서윤영 씨(35)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집'을 물리적 가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전하는 책이다. 서씨는 탄생과 죽음을 '집'에서 맞이했던 과거와는 달리 집이 '보금자리'의 의미를 벗고 단순한 과시나 자랑의 수단이 된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하고, 일반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은 아파트를 '문화'라는 렌즈로 바라보기도 한다.

"건축만큼 일반인과 전문인 사이에 괴리감이 큰 분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건축이라고 하면 무조건 화랑, 부티크만 생각하죠. 그런 괴리를 좁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는 인터넷한겨레의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건축을 사회학적으로 바라본 글을 기고했고 이 글들을 토대로 '집'에 대한 책을 완성해 나갔다. 이미 글의 기본 뼈대가 된 초고를 보았던 독자들은 "건축을 노가다 기술로만 생각했었다. 건축에도 이렇게 심오한 철학이 있는지 몰랐다"는 메일을 보내며 건축과의 거리를 좁혀준 서씨를 격려했다. 그만큼 서씨는 건축을 둘러싼 인문학적·사회학적 의미들을 진지하면서도 정답게 찾아나간다. 그는 본래 출산과 육아, 가사 등을 담당하는 의미의 집이 여성들을 예속, 소외시켰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백화점에 창이 없는 이유를 들며 이 건축들이 우리를 조종·억압하고 있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전문가의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본래 집은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가정, 가풍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도 하죠. 사임당, 난설헌이라는 이름 역시 공간을 의미했거든요. 지금이야 타워팰리스 같은 비싼 주거공간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가 중요해졌지만 본래는 철학적인 의미를 심연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서양에서 들여온 건물이나 지금의 주거문화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서양의 아파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토착화 노력'을 했기에 우리나라 고유의 아파트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파트에 온돌 난방을 설치하고, 신을 벗고 생활하는 아파트를 만들고, 1930년대 한옥 형식인 ㅁ자 구조를 도입한 것이 바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용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집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집'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좋은 집이 될 수 있고, 노인에게는 단독주택이 편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말하는 이유는 그가 어릴 적부터 건축을 '인간의 삶'으로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학교 2학년 때 4인 기준 가족이 사는 집의 설계도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었어요. 그 이후부터 '집'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건축'이란 T자형 자를 들고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즉 그곳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

는 학문이라는 걸 알아갔습니다."

그는 건축이 공학기술이면서 사회현상, 문화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매력'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흔히 건축가들이 말하는 '주거건축'이 곧 일반인들이 말하는 '집'의 의미가 되고 이런 인식이 확장되어 과거의 공동체 주거문화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서씨는 '고정건축'을 문화인류학적으로 바라본 글도 곧 책으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아무 때고 마음껏 현관문을 열어둘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건축가로서의 소망을 밝혔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